

# 물어도 뻘히 보기만... 'z세대 응시' 뭐지

## "불안·고립의 흔적" "무례함에 대응한 것" 세대 간 시선차

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Z세대(13~28세)를 겨냥한 새로운 용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. 이른바 'Z세대 응시(Gen Z stare)', 즉 무표정한 응시다. 이는 젊은 세대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점점 무반응하고 침묵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표현이다.

물론 Z세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. 그러나 이 현상을 설명하는 영상이나 경험담이 틱톡 등에서 확산하면서, 사람들은 식당의 종업원, 가게 손님, 심지어 수업을 받는 학생들까지 '응시'를 직접 목격했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.

### ■ Z세대는 왜 눈만 깜빡일까

한 틱톡 사용자는 "Z세대 스테어는 응답이 필요하거나 반응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"이라고 설명한다. 그는 최근 비행기 안에서 Z세대 여성에게 가방을 좌석 아래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,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응시만 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.

또 다른 틱톡 사용자는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Z세대 손님을 연기한 영상을 올렸다. 그는 "실제 사람과 말하는 것에 놀라는 모습"이라며 이들을 유쾌하게 풍자했다.

문화 콘텐츠에서도 이 모습은 포착된다. HBO 드라마 '화이트 로터스' 시즌 1에서는 밀레니엄 세대 여성 레이첼이 대학생 올리비아와 플라에게 반갑게 인사하지만,



▲ Z세대의 무표정한 응시가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. 사진=shutterstock

이들은 처음엔 무표정으로 반응한다. 이 장면은 'Gen Z stare'의 전형적인 사례로 회자된다.

### ■ 불안과 고립의 흔적 분석도

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인터넷에서 서로를 놀리는 데 익숙하다. 'Z세대 스테어'에 앞서 '밀레니얼 포즈(millennial pause)' 같은 조롱도 있었다. 하지만 '무표정 응시'는 단순한 유머 그 이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.

미국대학·고용주협회(NACE)가 202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졸업생의 90%가 사회적 불안을 이유로 오프라인 행사 참여를 피했으며, 약 25%는 회의에서 말하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응답했다. 영국의 한 외식업체 설문에서는 18~24세 응답자 중 34%가 레스토랑에서 종업원과 말하는 것이 불편해 동행자에게 대신 요청

한다고 밝혔다.

또 다른 틱톡커는 "이 응시는 인간과의 교류가 부족한 채 성장했을 때 생기는 물리적 현상"이라고 말한다. 팬데믹 속 격리와 원격 수업, 온라인 중심의 사회는 Z세대가 대면 소통을 연습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이다.

### ■ 수천 시간이 필요한 사회성 부족

심리학자 진 트윙은 저서 '세대들(Generations)'에서 "사회성은 수천 시간의 대면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, 청소년기는 그 시기의 핵심"이라고 말한다. Z세대는 이 시기를 대부분 온라인에서 보냈기 때문에, 실제 상황에서의 반응 방식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.

자기계발 작가 탐 카우르는 허핑턴포스트UK와의 인터뷰에서 "Z세대는 디지털 공간에서 자기 얼굴이 늘 노출되고 평가

받는 세대"라며, "사회적 불안과 피로가 '무표정 응시'로 드러난 것"이라고 말했다. 특히 여성의 경우 작은 상호작용조차 판단받는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대면 소통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.

### ■ "사회성 부족 아닌 상황 판단"

하지만 Z세대는 이 현상을 단순히 '무표정한 태도'로만 받아들이는 시선에 반박한다. 그들에게 'Z세대 스테어'는 타인의 무례함이나 무능함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뿐이다.

틱톡에서 한 사용자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손님이 "초콜릿과 헤이즐넛 아이스크림 주세요"라고 요청한 뒤 누텔라 아이스크림에 불만을 보이자, 당황한 듯 무표정으로 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.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바리스타가 된 Z세대가 "커피!"라고 외치는 손님을 맞닥뜨리고 할 말을 잃는다. 어떤 영상에서는 쿠키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"여기 쿠키 팔아요?"라고 묻자, Z세대 특유의 '응시'가 바로 발동된다.

### ■ 누가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나

'Gen Z 스테어'는 그저 밈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, 세대 간의 경험 차이와 디지털 사회가 인간관계에 끼친 영향을 돌아보게 만든다. 무반응, 무표정 속에는 '무례함'도, '불안'도, 때론 '무심한 관찰'도 존재한다. 그리고 그것은 단지 Z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닐지 모른다.

**건강한 몸을 만드는  
기적신발!**

**JGP Welshoes로  
통증을 끝내보세요!**

신는 순간 혈액순환 촉진, 지압 효과, 체형 교정,  
통증 완화 등 뛰어난 효과를 제공합니다

신어봐야 알지요! 체험해 보세요! **무료체험 환영!**

기적신발TV  
YouTube  
www.jgpamerica.com

가능성 건강신발  
발명 특허 획득  
HEALTHY SHOES

통증없이, 가볍하게  
**걸어보자!  
뛰어보자!**

골프  
신발

운동화

발을 알고 신발을 신으면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.

**JGP 기능성 신발은 어떤 신발 인가요?**

- ☑ 허리에 강한 힘을 준다
- ☑ 체력을 증진시킨다
- ☑ 신체의 균형을 잡아준다
- ☑ 신체를 교정한다

**\*아스티바, OTC로 구입하세요\***

**OC 부에나파크점 T.714.646.1122**

6281 Beach Blvd. #106, Buena Park, CA 90621  
(부에나파크 커머스 플라자: 예약문의 방문환영)

**LA 올림픽 갤러리아 T.213.330.6810**

3250 W. Olympic Blvd. #3F, Los Angeles, CA 90006  
(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3층 푸드코트 옆)